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미숙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지도교수 이경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미숙

조미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 심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이 경 화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주의력	6
가. 주의력의 개념	6
나. 주의력의 유형	10
다. 유아기의 주의력 발달	13
라. 주의력의 관련변인	17
2. 유아기 행동문제	24
가. 행동문제의 개념	24
나. 행동문제의 유형	26
다. 행동문제의 관련변인	30
3.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35

Ⅲ.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	38
2. 측정도구	39
3. 자료수집 절차	42
4. 자료 분석	43
Ⅳ. 연구결과	44
1.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	44
2.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45
3.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48
Ⅴ. 결론 및 논의	51
1. 논의	51
2. 결론	54
3. 제언 및 제한점	54
〈참고문헌〉	57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성 및 연령별 현황	38
<표 2> 검사문항의 신뢰도	42
<표 3> 성 및 연령별 주의력의 기술통계치	44
<표 4> 성X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	44
<표 5> 성 및 연령별 행동문제의 기술통계치	46
<표 6> 성X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	46
<표 7>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48
<표 8> 성별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49
<표 9>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50

Relationships between Attention and Behavior problems of young children

Cho, Mi S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ustained attention and divided attention of preschool age children influence their externalization problems (aggressiveness, hyperactivity)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depression, anxiety or physical symptoms) in relation to age and sex.

Following is questions this study will answer:

1. What difference do children of difference age and sex show in terms of attention?
2. What difference do children of difference age and sex show in terms of behavioral problems?
3. What correlation do attention and behavioral problems have in connection to children's age and sex?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12 to February 15, 2008. Participants were 243 children of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 Busan city, aged 5 to 6 and their parents. Children's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CCTT (Children's Color Trails Test, Shin Min-seop & Gu Hun-jeong, 2007) and par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K-BASC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For the data analysis, CCTT-1 and CCTT-2 scores (time spent for problems solving) were standardized to t-score metric and

K-BASC scores were calculated to obtain an average of each question.

For the purpose of Question 1 and 2, two-way ANOVA was applied, and for Question 3,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nalysis showed three findings:

1. Boys are slightly more attentive than girls and 6-year-old children are slightly more attentive than 5 year-old children.

2. Sex only influences on negative externalization problems such as aggressiveness and hyperactivity.

3. The more attentive children are, the lesser negative internalization problems are observed by their parents.

- a. More attentive boys are observed to show lower degree of behavioral problems including hyperactivity, depression or anxiety.

- b. More attentive children of age 5 are observed to have less internalization problems. Also, more attentive 6-year-old children are observed to show less internalization problems, especially depression.

Finally, this study found three important conclusions: First, attention ability of children increases as age goes up.

Second, behavioral problems depends on sex, and especially externalization problems are more founded among boys.

Third, attention ability and perceived behavioral problems have negative correlation.

Especially internalization problems such as depression do not show consistent correlation among groups of different sex and ag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태내부터 이미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가 형성되지만, 출생 이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적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임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특히 유치원 취원 연령의 유아기에는 신체와 운동조절능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감각기관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각과 주의력이 발달한다.

그러나 주의력의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충동성과 주의산만성은 이후 학습의 과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의력결핍과잉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후이기도 하므로, 주의력은 발달의 초기부터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유아에 대한 주의력에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추영란(1992)은 3세-7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의력을 연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아동이 주의를 끄는 주의폭이 더 길어진다는 결과를 밝혔으며, 성별에 따른 주의력은 연구되지 않았다. Berk(2003)은 유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규섭, 권준수, 류인균(2002)는 주의력은 정보처리단계의 첫 단계이므로 주의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다른 인지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주의력 저하는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기 시기의 주의력은 유아의 인지발달 및 전인적 발달에 매우 중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져야 한다.

국내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약 2%에서 5.07%에 이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ADHD)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박명화, 2001: 안미경, 2000: 조수철, 1999), 미국심리학회(2000)는 아동기 인구의 약 3%에서 7%에 해당하는 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유아와 아동기의 정상적 행동이 ADHD의 증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출현율은 산출이 어려우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각 학급에 대부분 한 두 명 이상의 ADHD 유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임원신, 2006; Barabasz & Barabasz, 1996).

주의력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행동문제는 장애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야함은 물론이며, 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유아에게 나타나는 충동성, 주의산만성을 간과하고 적절한 교육적 개입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후 심각한 행동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령기 아동이 되어서도 자신의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준다거나,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거나,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을 행동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2003)는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를 크게 외현화의 문제와 내재화의 문제, 및 기타문제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타당화한 바 있다. 외현화의 문제에는 공격적 행동이나 과잉행동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내

재화 행동 문제로는 우울이나 불안, 신체증상 같은 문제를 유아의 내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문제에 대하여 주 양육자를 비롯하여 유아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조기에 주의력 발달뿐만 아니라 행동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교육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취학 전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정보들을 무시하고 목표와 관련된 상황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발달적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아의 주의력 발달과 함께 사회적 상황, 즉 유아교육기관 취원 연령이 하향화 되고 개별화된 교육적 가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별 유아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주의력에 대한 고찰과 나아가 이러한 주의력이 유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문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이 임상적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력의 문제와 그 행동증후를 고찰하였으며, 일반 유아들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5,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과 행동문제를 측정해 보고, 유아의 성이나 연령에 따른 경향성과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유아기의 주의력의 발달경향과 행동문제의 경향성, 성이나 연령에 의하여 이러한 주의력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적 실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 나.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는 어떠한가?
- 다.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상관은 어떠한가?

3. 용어정의

- 가. 주의력

본 연구에서 주의력이란 한국판 표준화 검사인 아동 색 선로 검사(CCTT)(신민섭, 구훈정, 2007)에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지속적 주의력과, 주의력 분배를 측정한다. 지속적 주의력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를 유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CCTT-1은 지각추적, 지속적 주의력, 쓰기 운동기술이 요구된다. 주의력 분배는 두개 이상의 과제에 동시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의미하며 CCTT-2는 지각추적, 지속적 주의력, 쓰기운동기술, 분할 주의력, 순차적 처리능력, 억제-탈억제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판 표준화 검사인 아동 색 선로 검사(CCTT)에서 유아가 얻은 점수로써 주의력을 산출하였다.

나. 행동문제

본 연구에는 유아기의 행동문제를 공격성, 과잉행동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와 우울, 불안, 신체증상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로 규정하며, 한국판 영유아행동문제 평가척도(K-BASC)(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에서 얻은 점수로써 행동문제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의력

가. 주의력의 개념

현대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수많은 정보가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처리한다. 우리의 인지체계는 한정된 정보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주변의 많은 정보들 중 일부만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때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주의(attention)이다(성형란·이현진·김혜리·박영신·박선미·유연옥·손영숙 2003). 주의력은 인지심리학, 심리학, 신경심리, 정신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며, 학자간에 개념의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수백·이영재·여광응·조석희(2006)는 인지과정에 관한 PASS 이론에서 인간의 인지기능을 개인의 지식기반을 반영하여, 변경시키는 4개의 주요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계획기능, 주의집중, 동시처리, 순차처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중 주의집중은 개인이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집중하고, 번번히 나타나는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정신과정이며 선택적 주의집중은 무시하기 어려운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억제를 필요로 하며 지속적 주의집중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수행의 변산을 말한다. PASS 모형에서의 주의를 주로 선택적 주의집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개념이나 사물을 대할 때 주의를 분할되는 것과 집중되는 것의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선택적 주의집중에서 피험자들은 적절한 자극에는 집중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자극은 무시하게 되는데, 이는 정신적 에너지를 다르게 분배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민섭 등(2007)은 주의를 범위, 유형(언어적 혹은 시각적), 기능상의 과정(각성, 지속적 집중력 등), 목적 그리고 기저하는 신경학적 연결망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를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이질적인 과정으로, 이들 중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를 유지시키는 능력인 지속적 주의력과 두 개 이상의 과제에 동시에 반응하는 능력인 분할 주의력은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문제와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주의력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뇌기능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경심리학적인 방식과 절차들을 통해 주의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40년대 후반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측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의과정에 이용되어온 결과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발달되었으며(Davies, James, & Taylor, 1984), 임영미(1989)는 주의를 정보처리 이론 내에서 목적적 조작으로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능동적으로 주어진 자극을 받아들이고, 특히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감각 투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포획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의할 소재를 목적적으로 능동적으로 추구되는 과정이 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Thomas, 1979).

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사태의 일부나 한 측면에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정의되며,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복합적인 개념이다. 유기체의 능동성에 따라 주의과정을 수동적 주의와 능동적 주의로 나눌 수 있고, 대상의 수에 따라 선택적 주의, 다중주의, 간과적 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선택적 주의는 수동적 주의 과정이나 능동적 주의 과정 모두 일어나는 것이며, 학습의 효율성과 가장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의란 개념은 선택적 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Picton, Stuss와 Marshall(1986)은 주의 개념이 상태, 자원 또는 과정 중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주의란 한 개인이 특정한 감각 정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자 하는 내정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 둘째, 주의란 우리 뇌 또는 여러 감각기관에서 어떤 정신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자원 혹은 에너지를 가리킬 수 있다. 셋째, 주의의 개념은 한 개인이 여러 감각 정보들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여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 그에 반응하는 과정을 지칭할 수도 있다(조주연, 1996).

또한, 추영란(1992)의 주의집중이란 방해받지 않고 의식적인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외부 현실과 다르게 현재 상황에 의식을 집중하고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정서나 사고를 몰아내는 외부 현실과의 의식적 접촉이며 능동적 경험이라고 설명하며, 하규섭, 권준수, 류인균(2002)은 주의력은 뇌의 정보처리과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로서 주의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다른 인지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주의력의 저하는 인지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 불안, 정신병 등과 같은 임상증상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주의력은 첫째, 경계력은 외부 자극을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둘째, 순간주의력은 관심을 한가

지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 셋째, 지속적 주의력은 한 가지 자극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 넷째, 선택적 주의력은 여러 자극 중에서 한 가지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다섯째, 분할주의력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에 관심을 적당히 분배하는 능력으로 주의력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erk(2003)은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정보들은 무시하고 목표와 관련된 상황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며 유아들은 주변의 정보들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하며 이러한 선택적 주의를 인지적 억제에 의존한다. 인지적 억제는 내적, 외적 자극들을 통제하고 주의집중에 방해되는 정보들을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osnor와 Boies(1971)은 지속적 주의, 선택적 주의, 처리역량 등 3개의 구성 요소로 주의를 분석하였고, Moray(1969)는 정신적 주의집중, 경계, 선택적 주의, 탐색, 활성화, 고정, 종합적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Taylor(1980)는 지시, 전환, 포착, 분할, 제한, 지속되는 것으로 주의를 보았다. 이와 같이 주의의 다양한 측면은 아동이 과제를 수행 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주의하지 못하여 정상적 기능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학습에 종종 실패를 한다(Lovaas et al., 1979)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리학자나 신경심리학자 모두 주의에 대한 통합된 이론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주의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켜왔고 신경심리학자들은 주의 과정에 개입하는 뇌 영역들을 이해하는 데 주력해왔다. 신경학에서는 주의기체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에 발달연구로 유아의 주의력에 대한 이해와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주의력의 유형

주의력에 관한 용어나 그 범주는 연구자마다 기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택적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각성도, 조절능력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평가방법은 이들 주의력 범주를 완전분리하거나 독립적 평가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독립적 평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영희, 2002).

(1) 선택적 주의력(selective attention)

김귀애(2003)에 의하면 선택적 주의란 과제와 관련된 자극에만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말한다(Douglas, 1983). 선택적 주의를 나이나 대상의 각성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상아동의 경우 선택적 주의력이 3-12세까지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arie-Dreblow & Miller, 1988; Enns & Akhtar, 1989; Lane & Person, 1982). Enns 와 Akhtar(1989)는 선택적 주의력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의용량의 증가, 과제 책략 생성능력의 증가, 억제 능력의 증가를 제안한 바, 선택적 주의의 실패는 실제 정보와 방해자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Cohen, 1993), 무관한 정보는 무시하고 관련 자극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실패하는 것(Douglas, 1983), 방해자극으로 인해 빠른 처리에 방해를 받는 것(Hooks et. al., 1994), 신경학적으로 대뇌의 후두엽 부위의 손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ilman, Waston, & Valenstein, 1993; Posner, Walker, Friedrich, & Rafal, 1987).

또한 이영희(2002)는 한꺼번에 제시되는 여러 자극 중 특정자극 혹은 자극의 특정 면에서만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선택적 주의력이라

하였다. 선택적 주의력은 주의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점주의력과 주의력의 분배능력과 연관된 분할주의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점주의력과 밀접한 개념이 주의 산만성이다. 다시 말하면 시각적 주의 분산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주의력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초점주의력은 스트룹(Stroop)색채단어검사와 선로 잇기 검사로 평가할 수 있는데 스트룹 색채 단어검사(Stroop Color Word Test)에서는 색깔과 단어의 의미를 가진 2가지 차원의 자극이 제시된다. 분할주의력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시행할 때의 주의력 분배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분할주의력은 정보처리용량과 조절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조절전략은 다시 자동처리 과정과 통제된 처리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동처리 과정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며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든다면 ‘읽기’는 매우 자동화된 활동으로 몇 번 짧게 훑어보는 것만으로 본문 한 줄의 의미 파악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통제된 처리과정은 느리고, 직선적이며, 일상적이 아닌, 노력을 요하는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est로 분할주의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검사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제시하면서 피검자에게 덧셈을 시키는 데 지금 제시된 숫자와 바로 전에 제시된 숫자를 더하게 하는 식이다. 선로 잇기 검사-B형을 수행할 때도 주의력 분할이 요구된다. 이때에는 문자와 숫자를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제는 환자의 작업기억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조주연(1996)은 선택적 주의력이란 유기체가 여러 감각 자극들 중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자극을 선택하여 그것을 집중적으로 정보처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지속적 주의력(sustained attention)

Douglas(1983)은 지속적 주의력이 시간이 경과해도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 주의의 실패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행의 질이 떨어지는 것(Cohen, 1993),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것으로 과제에서 이탈하거나, 경계정도가 떨어지는 것(Douglas, 1988)으로 지속적 주의의 결핍은 신경학적으로 뇌의 전두엽의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귀애, 2003, 재인용). 지속적 주의는 경계와 피로해지는 정도가 관여하며, 피로에는 신체적인 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반해 경계는 동기나 강화 유관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ockwood, Marcotte & Stern, 2001).

임영미(1989)는 지속적 주의란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오랫동안 계속 한 가지 이상의 정보에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sasraman, 1984). 일정시간동안 계속된 정보에 지속된 주의를 문제가 흥미롭고,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이며, 열중케 하는 놀이 활동과 같이 자기-지시적인 자발적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과제는 비교적 쉬우나, 타인의 지시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혹은 무리한 놀이 활동에 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Parasuraman, 1984). 특히 지속적 주의를 고유의 과제 외에도 여러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Taylor, 1980).

Richardson(1978), Taylor(1980), Parasurman(1984), Davies, Jones, 와 Taylor(1984) 등은 지속적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인성유형, 경계 과제유형, 각성수준, 동기, 목표자극 제시율, 연령 등을 들고 있다.

(3) 각성도(alertness)

주의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긴장성 변화와 위상성 변화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긴장성의 변화는 생리적 변화와 수의적 일어나는 데 지루한 작업이나 변화가 없는 상황 등에서 신호 탐지력이 저하되는 것이며 위상성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신호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각성도의 변화이다.

(4) 주의력 감독 조절(supervisory attention control)

주의력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특성에 따라 주의력을 다른 측면으로 변경하고, 반응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뇌의 실행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 유아기의 주의력 발달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정보들을 무시하고 목표와 관련된 상황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발달적 경향성을 보인다. 출생 시부터 시작된 자기 지각적이고 선택적인 주의를 유아기에 걸쳐서 더욱 발달된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더 적응적, 계획적으로 자신이 수행 하고 있는 과제 목표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부적절한 자료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게 되는 선택적인 통제 능력이 점차 발달된다. 과제나 문제의 특이성에 맞춰 더욱 적응적으로 자신의 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따라서 유아기의 주의 전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계획적으로 된다. 유아기에는 주의 환경을 탐색

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야 할 방법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능력도 점차 향상되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의과정이 된다(김정희·김현주·정인숙 2000).

주의력이 좋다는 것은 특정과제나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수행과 조화를 이루는 지각상태로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주의집중능력은 선천적이나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발달하면서 통제적이고, 적응적, 계획적으로 발전한다고 한다(김수희·전대성·나용선·김지현 2006).

(1) 주의통제의 발달

어린 유아들은 주의집중이 아주 짧으나,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1세경부터 3.5세까지의 유아들은 장난감과 같은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Ruff & Lawson, 1990). 즉, 1세아는 한 장난감에 3.5초 동안, 3.5세아는 8초 이상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유아들은 학령기 아동만큼 놀이를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하고, 과제 지향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볼 때 나이든 아동과 성인들보다 쉽게 방해물을 받는다. 2-3세 유아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며, 방 주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각할 정보의 형태가 유아의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5세가 되면 유아들은 일단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충분히 몰입되면, 외부의 시청각적 방해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TV에 몰두하게 된다.

또 자신의 지적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며,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그램에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아들은 또 프로

그림에서 제시되는 중요 정보에 아주 민감하다.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보면, 4-6세 유아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실보다는 중요한 사실을 더 잘 재생해낸다. 또 6세 이하의 유아들은 청각적 내용보다는 프로그램의 시각적 내용에 보다 흥미를 보인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주인공이 말하는 것보다는 우스꽝스런 모습, 큰 바, 서투른 움직임, 찌푸린 얼굴 표정 등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각되는 정보형태에 따라 유아들의 주의반응은 달라진다(김정희 외, 2000, 재인용).

즉, 적절한 외부 정보에만 능동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집중하고 부적절한 정보들은 무시된다.

(2) 적응성의 발달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아가 과제의 관련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관한 특성을 무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아가 성숙해짐에 따라 어떤 상황의 주요 측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또 관련 없는 속성으로 인해 혼란되는 일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7, 10, 13세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천 뒤에 숨겨진 작은 동물들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는 우연학습과제를 준 연구가 있다(Miller & Wiess, 1981). 이 과제에서는 숨겨진 동물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동물 위쪽이나 아래쪽에 가정용품(예: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을 하나씩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이 과제의 목표는 과제와 관련 없는 정보 즉 관계없는 가정용품을 무시하고 목표물(동물)의 위치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가정용품을 무시하고 목표물(동물)의 위치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나이든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보다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 그러나 무관한 지식 즉 가정

용품이 어디 있었는지를 측정했을 때,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들보다 가정용품이 숨겨진 곳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유아들은 동물의 위치와 가정용품의 위치를 같은 정도로 기억해냈다. 이는 곧 연령이 어릴수록 과제와 관련 없는 무관특성을 배제하고 관련 특성에만 주의하는 적응력이 덜 발달되었음을 나타낸다.

나이 든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과 달리 과제의 요구에 따라 주의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고 개의 색깔과 점의 수, 그리고 고양이의 색깔을 기억하도록 했을 때, 나이든 아동들이 더 잘 한다. 어린 아동들은 고양이와 개의 특성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고, 개의 점수를 잊어버린다. 나이든 아동들은 과제의 요구에 따라 주의의 폭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아동들보다 우수하다. 같은 전략이 모든 과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과제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인 것이다.

관련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동안에 증가하고, 무관한 정보에 대한 처리능력은 11~12세까지는 다소 증가 내지는 유지되며, 그 이후에 감소한다. 이는 곧 나이든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보다 관련 자료에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계획성의 발달

유아의 주의전략 중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조직적인 계획 하에 수집하는 능력의 발달이다. 유아들은 처음부터 주위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을 계획할 수는 없다. Vurpillot(1968)는 유아들에게 이 과제를 실시했는데, 유아들은 자극을 비교함에 있어 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교하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들도 계획적인 주의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Miller와 Weiss(1981)는 우연학습과제를 수정하여 동물과 가정용품의 위치에 관련 정보를 포함시켰다. 새장 그림 뒤에 동물들을 숨기고, 가정용품은 집 뒤에 숨겨 두었다. 7세와 10세 아동들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새장 뒤를, 가정용품을 물어보면 집 뒤를 보았다. 또 부가적 단서 제공 했을 때, 6세 아동들은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도 전략이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관련 측면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희 외, 2000, 재인용).

라. 주의력 관련 변인

추영란(1992)은 주의력 발달은 유전과 성숙요인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및 비-사회적 경험, 그리고 분화, 협응, 통합 및 평형화와 같은 발달의 원리, 과정, 기제 등 가능한 모든 변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만수(2004)에 의하면 주의력과 관련되어 제시되는 관련요인은 첫째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 생리적 반응, 신경학적 과정, 심리적 소질 및 성격특성 등이 포함되고, 둘째, 외적변인으로 과제 및 경험 과제 속에 묻혀 있는 변인, 가외적인 교란자극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숙희(2001)는 주의력에 변인은 매우 다양한데, 지각, 지능, 연령, 환경적 변인으로 보고 있다. 주의력은 ADHD와도 관련이 있는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1) 개인적 요인

(가) 연령 · 성별

추영란(1992)은 3세-7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의력을 연구한 결과 나이든 아동이 주의를 끄는 주의폭이 더 길었다고 밝혔으며, 성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Berk(2003)은 유아들은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다른 정보를 무시하고 목표와 관련된 상황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agen과 Sabo(1967) 등은 피험자들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과제성취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극양상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숙희, 2001). Silverman(1970)은 주의의 특성은 성별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주의유형은 사회적 단서들을 민감하게 탐지하고 반응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또한 외형적으로 강한 자극 강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정서적 단서들에 반응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남성들의 주의유형은 교란성이 적고, 사회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의 상대적 부족, 다소 높은 각성 수준 및 내적 감성과 사고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서만수, 2004).

(나) 기질 · 성격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 나타나는 성격 특성으로 즉, 아동의 활동 수준, 반응에 동반되는 에너지의 강도나 정도, 고집스러움, 주의의 범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민감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정서를 표현하는 양상 등이 ADHD로의 발전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한다 하겠다. 유아의 기질이 부정적이고 요구가 많은 경우 이들이 후에 ADHD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부주의하고 반항적이라고 평

가한 만 2세에서 3세의 아동 46명과 행동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6세가 될 때까지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초기의 행동상의 문제를 보였던 아동들 중의 50%가 여전히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ADHD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ADHD로 반전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하겠다(송주은, 2006). Eysenck(1967)은 성격과 주의에 관계에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심리실험에 보다 쉽게 조건화되며, 내향적 기질을 소유한 사람보다 자신의 환경에 반응적이며, 각성 정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서만수, 2004).

(다) 뇌 손상

ADHD의 원인을 뇌손상과 관련시킨 연구결과에서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결과 뇌의 전두엽에서 혈류와 신진대사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Wong, 1998). 전두엽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그런 기제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해 과잉행동이 생긴다 설명하고 있지만(Goodman & Stevenson, 1993), 모든 ADHD 아동에게 중추 신경계의 뇌손상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 뇌의 화학물질의 이상

ADHD의 원인을 신경전달물질 같은 생화학적 과정의 이상에서 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과거 수년간 인위적인 식품 첨가물, 형광성 불빛이나 공해 등의 현대적인 환경요소들이 ADHD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나왔다(Accardo, 1991). 정신을 자극하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ADHD의 치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통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장

애의 원인이라 보는 것이다.

(마) 각성 활성화의 수준

Cratty(1989)는 개인의 습관적인 각성 및 활성화 수준을 조절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장, 단기 주의에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적정수행 수준이 요구되는 학생은 단기간의 주의가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주의 유지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하다.

(바) 시각

Duncan(1985)은 학생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물에 집중하여 습관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방법과 물체를 추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인차는 운동성화에서 물체에서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성중 몇몇은 장기간의 무의식적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Kewler & Zingle, 1985).

(2) 환경적 요인

(가) 부모의 양육태도

이숙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주의집중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바, 부모가 가족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간의 대화, 수용적인 태도, 부모들의 자율적 태도, 상과 벌의 절도 있는 행동이 자녀의 주의집중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즉 가족간의 원만한 유대관계가 주의집중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조은주(200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착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에 상관이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경우 학업성취가 높으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학업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주의집중은 학습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명령하는 태도로 대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ADHD를 나타낼 위험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이는 자녀에 대해 적대적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앞서 제시한 부정적 기질을 발전시킬 소지가 많음에 비추어 생각해도 그리 어려운 추측은 아닐 것이다. 유아가 일단 가정에서 부모와의 사이에 파괴적이고 순조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도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잘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시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 부모와 가족

ADHD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주로 아동의 가족특성과 같은 요인으로, 이러한 것이 ADHD를 직접 유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보다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ADHD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의 원인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와 가족의 문제를 거론할 때는 유전적 요인을 먼저 생각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도 어머니의 낮은 학력이나 부모의 낮은 사회적 지위, 편부 나 편모 등이 가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 주변 환경이 유흥업소, 상가지역 아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이숙희, 2001).

(다) 주의에 대한 환경의 영향

김경중 등(2003)은 주의를 통제하는 변인, 다시 말하면 주의의 선택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무엇보다 자극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Pick, Frankel, & Hess, 1975). 많은 상황에 있어서 어떤 자극은 개인이 찾아서가지 아니라 자극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른 차원보다 더욱 주의를 끈다. 색깔, 모양 등의 자극 차원들은 다른 것들보다 지각적으로 현저하다. 자극 차원들의 지각적 현저성에는 전체 위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avell, 1985; Odom & Guzman, 1970). Jaffrey(1968)는 현저한 자극일수록 지각을 극대한 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자극 배열에서 적절히 자극을 과장하는 방법, 부적절한 비관련 자극 변인을 제거하는 방법(조경미, 1991; Gibson, 1969) 등 지각환경을 구성해주면 집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진명(2001)은 주의집중이란 여러 가지 자극 가운데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처리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유아의 주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이든 아동은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방해될 때 받기 때문에 주의의 폭이 더 깊다. 따라서 대상 연령에 따라 주의집중 폭을 고려하는 수업계획 및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의 집중은 감각 수용기에 의한 자극의 수용이며 인간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Anderson, 1983). 시각적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아의 시선이 제시하는 쪽을 향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아가 보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얻는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Calvert 등(1982)은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주리라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였는데, 첫째는 내용을 뚜렷하게 지각하고, 순서가 뚜렷할 때 주의집중을 지속하고, 둘째는 이해가 가능하고, 흥미 있고 유익한 정보일 때 또 주의집중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일 때 유아로 하여금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Gage와 Berliner(1984)도 유아의 흥미와 연결될 때 주의집중을 얻는 것과 주장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주의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극, 의사소통 경로의 변화 등 다양한 교수매체사용을 강조 하였다. 또 유아들은 이해가 가능할 때 능동적으로 주의집중을 하게 된다고 Rubin(1981)은 지적하였다. Gage와 Berliner(1984)도 동화가 유아의 흥미와 연결 될 때 주의집중을 하게 되며, 주의집중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극 전달매체의 변화 등 다양한 교수매체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또, 추영란(1992)은 주의력 발달은 출생 후의 환경적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아기(infancy) 때의 지각발달에는 자극이 필요하며, 외부자극의 경험은 지각 및 감정 등으로 적절히 전환, 통합되어가면서 더 의미있게 된다. 세심한 주의와 지시는 아동의 주의를 유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주의집중은 유아의 흥미와 다양한 자극, 다양한 교수매체가 다각적으로 운영될 때 여러 가지 자극 가운데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편, 어떤 자극 특징 또는 차원이 가장 현저한가 하는 것은 주어진 연령에서 피험자에 따라 그 고 과제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2. 유아기 행동문제

가. 행동문제의 개념

행동문제는 매우 광범위하여 학자들마다 견해차이가 있다. 행동문제란 1950년대 초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용어로 쓰여 오다가, 50년대 이후 Freud의 심리학적 영향을 주로 받아 정서 장애(emotional handicapped)라는 용어로 쓰여 왔다. 그 후 1960년대 후기에 이르러 ‘행동문제’이라는 용어가 강조되었으나, 행동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각 분야마다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되어 현재까지 학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는 내려지지 못하였다.

정문자(1988)는 행동문제란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행동이란 부모, 교사,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관심이 되는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아동행동조사(CBCL : Child Behavior Checklist) 등에서 정의된 행동목록을 의미하였고, Department For Education(1993)은 행동문제는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성문제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으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행동을 말하며, 정서적, 내면적인 행동문제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안으로 잠재된 행동으로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행동문제를 말한다(황혜정 · 윤명희 · 강성빈 · 성낙운 · 황혜신, 2002).

조은숙(1992)은 문제 행동은 심한 정신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요인이나, 가정, 학교, 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부적응 행동이나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거나,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했다(김지영, 2002, 재인용).

행동상의 일탈의 문제를 ‘문제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행동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은 그 개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여주는 행동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경우 ‘문제’란 이미 보통 또는 정상과 다른 범주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행동 수정이나 적절한 처치의 효과도 없는 행동, 이미 행동 지도의 영역을 벗어나 매우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반면, 행동문제의 경우 ‘문제’란 그 행동이 개인의 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용 정도 여부가 논의가 될 수 있는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므로 행동 문제의 요인을 제거해 주거나 적절한 처치를 해주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적 관점으로 생각되어 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행동’이란 개념도 교육학이나 심리학적 개념으로 볼 때 외현적 행동이나 내면적 행동, 또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 영역의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행동 문제를 행동상의 문제라고 하는 경우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외현적, 내면적 행동상의 문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동문제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 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유아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 양식이라 볼 수 있다(송의열, 1999).

나. 행동문제의 유형

행동문제의 분류체계는 사용 목적, 사용자에 따라 원만한 의사소통, 정확한 원인 규명, 효과적인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에 있도록 볼 수 있다. 행동문제의 유형은 크게 진단적 접근, 다변량 분석에 따른 접근, 범주적 접근으로 나뉘어 각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행동문제의 유형으로 나뉜다.

(가) 진단적 접근에 의한 분류

행동문제의 원인, 증상, 치료 반응, 경과 등을 전제로 하여 분류하는 체계로서 광범위한 장애와 조건들을 포함하여 유아나 아동의 행동문제 다양성을 반영하고 문제를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아나 아동의 장애와 조건들을 기술하는 언어 체계가 발달, 구체화되어 있어서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의집중력결핍장애와 같은 범주의 행동문제의 진단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러 문화권에서 유아나 아동을 다루는 임상가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단점은 대부분 범주의 장애와 조건들의 상호 의존도가 낮고, 원인은 무시하고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각 개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아나 아동의 행동문제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또는 신뢰도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나) 다변량 분석기법(multi-variate approach)에 의한 분류

문제의 원인이나 치료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유아나 아동의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로서 통계적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분류한다.

이 체계의 장점은 첫째, 한 개인을 여러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임상가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행동과 조건들을 보여준다. 셋째, 척도상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관찰할 수 있다. 넷째, 가장 최소한의 항목으로 가장 실용성 있는 척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연구와 정책 수립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기술적 연구들을 기초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발생 빈도가 적은 문제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기가 쉽다. 둘째, 개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어떤 형태의 이론이나 치료적인 접근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넷째, 통계적 가공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묶여지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는 통계 방법에 따라서 진단의 경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다) 범주적 분류 체계

유아나 아동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해 또는 가정, 학교 장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아동의 행동문제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유아 상담이나 아동 심리 치료에 활용하거나 연구시 주제로 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 나타나 행동문제의 분류를 범주적 분류 체계라고 정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Essa(1988)의 유아 행동문제의 유형

·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 - 남을 잘 때림, 깨물기, 물건을 던짐, 욕을 함, 별명을 부름, 공격적인 행동으로 다른 유아나 아동을 다치게 함, 나누어 갖지 않음, 물건을 제공하여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함, 물건을 훔침과 같은 행동.

· 방해하는 행동 - 집단 활동을 방해함, 이유 없이 교실을 자주 나감, 공연히 교실에서 뛰어 다님, 교실에서 소리를 지름,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소리를 냄과 같은 행동.

· 파괴적 행동 - 책을 찢음, 장난감을 부숴 버림, 물건을 변기에 버림, 종이를 낭비함, 다른 아동의 작업을 파괴함과 같은 행동.

· 감정적·의존적 행동 - 자주 울음, 때를 씹음, 자주 토라짐, 유아어를 사용함, 손가락을 빠름, 옷에 오줌을 싸, 관심을 끌려고 함, 징징거림과 같은 행동.

· 사회적 활동의 기피 -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지 않음, 집단 활동 시간에 수줍어함,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음, 대근육 활동을 잘 하지 않음, 역할 놀이를 잘 하지 않음, 말을 하지 않으려 함,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음과 같은 행동.

② 지각된 유아 행동문제의 분류

김유미(1996)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격, 대인 관계, 생활 태도와 예절, 습관, 정서, 행동 문제, 학습 등의 범주에서, 교사의 경우 유아의 성격, 습관, 행동 문제, 학습, 대인 관계, 생활 태도와 예절, 성 등의 범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행동문제 하위 범주는 주의 산만, 고자질, 공격적 행동문제, 정리 정돈 안함, 성기에 관한 문제, 이기심, 식사 행동, 학용품

아끼지 않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경숙 등(2003)은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BASC)를 개발 타당화 도구로 되어 만 2세 6개월에서 5세 영유아의 행동문제를 제시하는데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공격성, 과잉행동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공격의 문제란 언어나 신체적 방법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등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과잉행동은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없이 행동한다, 차를 탔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등이 포함된다.

둘째, 내재화 행동문제의 범주에는 우울, 불안, 신체증상이 해당된다.

우울이란 일상 활동 수행의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 슬픔, 자살 생각과 같은 것으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 운다. 등의 행동이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내재화 행동문제이다. 불안은 실제 또는 가상적인 문제에 대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한다, 실수할까 봐 걱정한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신체증상은 작은 신체문제와 불편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평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통이 있다, 소화기 장애가 있다 등이 내재화된 행동문제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양혜경과 이해련(1996)은 언어, 행동, 주의, 대인관계, 학습문제, 정서, 틱 증상, 지적발달 등의 행동문제 순으로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했으며, 임명희(1997)은 유아들의 행동문제를 12가지 범주로, 범주 활동 참여상의 문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공격적 파괴적 행동, 범주 도덕적인 문제, 생

활 습관상의 문제, 규칙·질서·예의·절제의 문제, 의사소통상의 문제, 가정 및 가족(형제)관계의 문제, 정서 및 심리적인 문제, 성격 및 인성의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 학자들 간의 행동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는 점은 부모나 교사가 행동문제를 지각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유아나 아동의 행동문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지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의 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행동 수정이나 교정 또는 임상적 치료를 위하여 부모나 교사가 행동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의 행동문제 분류나 유형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 행동문제 관련변인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지성애(1999)는 유아의 문제행동 원인을 부모와의 격리, 유아교육시설, 결손 가정, 부모-유아의 애착, 애정결핍, 발달에 따른 갈등 상황, 이혼, 형제간의 경쟁, 부모의 양육태도, 완벽주의 부모, 유전, 기질, 가정의 물리적 환경, 텔레비전, 수줍음, 신체적 장애, 학대, 알콜 중독자, 마약, 영양 공급, 알레르기 및 민감성, 과다 활동과 주의 집중 결핍 장애 등 20가지로 정리하여 다른 원인들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황혜정 등(2002)은 유아의 문제행동은 주로 환경적요인, 부모요인, 유아 스스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Kauffman(1993)은 문제행동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선천적 사고, 뇌손상 또는 뇌기능 장애, 영양장애, 생화학적 불규칙성,

이혼, 편부모의 증가 등), 학교요인(지능과 학업부진 등), 문화적 요인(대중매체, 동료 집단, 이웃, 도시화, 인종문제, 사회계층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60% 정도의 유아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며 (Hwang & St James-Roberts, 1998; McGuire & Richman, 1988; 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초기에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Rutter(1980)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간의 부적응, 아버지의 범죄경력, 어머니의 정신병력, 유아의 시설보호 경험 등을 들었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자간의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할수록 문제행동의 원인은 더욱더 증가하리라 본다.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개인적요인

(가) 기질

기질은 타고난 특성으로서 행동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Thomas, Chess & Birch(1969)은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된 유아는 다른 기질의 유아에 비해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까다로운 기질 자체가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지속될 수도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양육관계와 부모-자녀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까다롭지 않은 유아들의 긍정적이며, 규칙을

잘 지키며, 반응이 중간정도이며, 빠르고 새로운 환경, 상황에 긍정적으로 잘 적응 반면 까다로운 유아는 흥미가 적고 낮은 활동수준으로, 처음에 움츠러드는 반응, 느린 반응, 잦은 부정적 반응이다(최영순, 2001, 재인용).

서수경(1993)은 유치원의 문제행동에서 기질이 까다로운 여아보다 기질이 까다로운 남아가 부적응 행동이 많고, 적대적 공격성을 지니며, 전체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나) 유전

유아 자신에 뚜렷한 행동문제에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유아는 가족 구성원의 유전적 행동을 이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 선천적 질병·신체적 결함

유아가 선천적으로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 유아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좌절을 느끼고 낮은 자아형성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유아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형성되는데, 다른 유아들에게 지지 않으려 하며, 그들과 같은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무능감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욕구에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더 큰 좌절로 지속되어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환경적 요인

(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는 최근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이은주(2006)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집합주의적 양육가치와 과다 애정 경계의 양육 신념은 유아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인선(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거부, 제재성이 아동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허용, 방임성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좋은 양육태도는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 자신의 자녀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며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정의 물리적 환경

많은 연구들이 가족 내의 공포, 우울, 알콜리즘의 역사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의 불안이 전염된다고 한다. Becker(1964)도 엄격하고, 독재적 부모의 자녀는 위축과 수치심이 많으면, 성인역할의 수행이 어렵고, 신경증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 부모 자녀와의 관계, 결혼만족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경험의 차이 등 가정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유가효·윤요은 2003). 한편, 이경숙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주의집중을 더 잘하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사회적 기술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제순위도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 첫째인 유아가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관심이 동생과의 분산, 양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유아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 결손가정 · 부모의 이혼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농어촌 가정의 19-30%가 편부모, 조부모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의열, 1999). 또한 최근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모의 실직이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의 가정이 늘어나 편모, 편부가정, 조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유아는 상실감과 부모-자녀관계의 불안함, 교육의 기회 결핍, 신체적 무려감은 어린 유아에게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라) 유아교육시설 및 교육적 환경 및 기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 행동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열악한 유아교육기관 환경은 무자격교사, 미흡한 교사의 처우, 교사로서의 책임감 결여, 교사대비 유아의 비율 등이 고려되지 못하여 교사 중심의 구조적 환경 속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못한 교육환경은 교사와 다른 유아와의 충돌로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 대중매체 ·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 텔레비전은 유아들에게 매우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 가정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거의 보급되어 있는 현실에 유아들의 컴퓨터 오락물을 통한 공격성을 모방하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PC 게임 환경을 통해 공격적 자극물을 통해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고, 최근에는 텔레

비전의 유선방송의 보급으로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유아 비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컴퓨터, 텔레비전의 내용에는 여과되지 않은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많고 성인프로그램 접근이 쉬워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이 어려워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바) 유아의 스트레스

김선희(2004)에 의하면 만 3-5세 유아들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좌절감 경험함 스트레스, 자존감 상함 스트레스가 유아의 주의산만성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3.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유아의 주의력에 대한 문헌연구를 확인한 결과 일반 유아의 주의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저조하며, 대부분의 연구는 ADD 혹은 HD, ADHD로 진단받은 유아의 행동문제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강임순(1996)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ADHD 성향과 불안증상 정도에 연구대상 중 11%의 아동이 ADHD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약 24%의 아동이 평균 이상으로 불안을 느끼는 불안증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ADHD 성향을 나타내며,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불안증상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DHD의 주의산만함, 과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증상과 불안의 과민성, 현실도피, 흥분, 우울과 같은 증상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며 나아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거나 우울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불안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따돌림 피해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폭언,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ADHD아동은 자아수용, 자아존중, 자아신포, 자아개념 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으며 사회성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김귀애(2003)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ADHD 아동의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의 연구, 임영미(1989)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주의력과 과잉활동 아동과의 연구에서 ADHD 혼합형 아동들은 지속적 주의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선택적 주의를 잘 하는데 비해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들은 선택적 주의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지속적 주의를 기울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혼합형 아동들은 지속적 주의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반면,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반응속도만 느릴 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데는 정상아동과 차이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남민 등(1996)은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간의 불안 척도점수를 알아본 결과 상태 불안척도는 ADHD군에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서만수(2004)는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적의 관계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별(남, 여) 요인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주의집중력에 차이가 있으며, 성적(상, 중, 하)수준별 요인에서도 학생들의 주의력에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 직업별(공무원, 회사원, 기타)요인에서는 학생들의 주의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주은(2005)은 ADHD 장애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주의 집중 시간이 매우 짧고,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고(하은혜, 1992),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더 들이고, 과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는 반응 양식을 드러내며, 과제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나 심한 좌절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김소라, 1995).

오명숙(2004)은 유아의 공격성은 일반집단-반항행동 성향집단-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집단-반항행동 성향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복합으로 가진 순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원신(2006)은 ADHD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도, 기질성향,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친사회성, 기관에서의 정서 상태, 또래간의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 등 다섯 개 하위 범주 모두에서 일반유아에 비해 낮은 적응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변인과의 관계 연구이다.

이렇듯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일반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를 다룬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유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양해진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이 나타나며, 참고문헌의 내용이 ADHD 아동관련 연구를 주로 고찰했음을 밝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H구, J구, Y구 소재 2개 유치원과 1개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와 만 6세 유아 250명과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검사인 한국판 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 CCTT)(신민섭, 구훈정, 2007)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에게 한국판 영유아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에 응답하도록 하여, 유아와 학부모 모두가 검사를 받은 경우만을 분석 사례로 삼았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 유아 243명의 성 및 연령별 현황과 부모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 및 연령별 현황(N=243)

	만 5세 (60-72개월)	만 6세 (73-84개월)	전체
남아	53	69	122(50.2%)
여아	51	70	121(49.8%)
전체	104(42.8%)	139(57.2%)	243(100%)

<표 1> 연구대상의 부모응답자 현황(N=243)

	구분	사례수	백분율
응답자	어머니	217	89.3
	아버지	26	10.7
연령대	20대	11	4.5
	30대	182	74.9
	40대	50	20.6
학력	중졸	2	0.8
	고졸	12	4.9
	대학졸	185	76.1
	대학원졸 이상	44	18.1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아동 색 선로 검사 (Children's Color Trails Test: CCTT)

CCTT는 Llorente, Williams, Satz, D'Elia(2003)가 개발한 표준화된 개별 지필검사로서, 만 8세부터 만 15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전두엽 기능, 즉 주의력과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경심리검사이다. 기존의 아동용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숫자와 색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민섭과 구훈정(2007)이 만 5세에서 7세 아동의 기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CCTT는 발달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시각-운동 능력과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초기 실행능력을 측정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뇌와 행동관의 관계

를 평가한다. CCTT의 특징은 자극이 숫자와 색으로 구성되어 어린 아동의 초기 인지적 성숙도를 감안하여 개발된 것이며, 유아나 어린아동들도 노란색, 분홍색과 같이 친숙한 색들을 구별할 수 있으며, 숫자개념도 약 30개월이 지나면 발달되기 때문에 색과 숫자가 검사 자극으로 선택되었다. 글자 대신 색을 사용한 이유는 평가시 아동의 흥미와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2세가 되면 선 긋기가 가능하므로 5세 이상의 아동들은 적절한 검사 도구이다.

특히 CCTT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문맹아동, 비영어권 아동들, 읽기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실시하는데 상당히 공정함 검사라는 장점이다. CCTT는 임상장면에서 아동들에게 수행시간이 짧고 친숙하며 경제적인 검사로 전두엽의 실행기능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CCTT는 두 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CCTT-1에서는 지속적 주의력을 측정하며 여기에는 지각추적, 지속적 주의력, 쓰기 운동기술이 요구된다. CCTT-2에서는 지속적 분할 주의력을 측정하며 지각추적, 지속적 주의력, 쓰기 운동기술, 분할 주의력, 순차적 처리 능력, 억제-탈억제 능력이 요구되며 CCTT-1 보다 세밀한 주의력을 요한다.

나.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

본 연구에서는 미국판 부모보고용 영유아행동문제 평가척도(BASC)의 한국판 표준화 예비 작업으로서, 이경숙 등(2003)이 통계분석을 통해 양호한 문항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공격성, 과잉행동)와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 신체증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0-3점의 4점 평정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경숙 등(2003)은 공격성을 임상적 척도에는 적대적 방법(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 경향을 측정(예;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위협 한다 등), 과잉행동은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측정(예: 생각 없이 행동한다, 차를 탔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등), 우울은 일상 활동 수행의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 슬픔, 자살 생각을 측정(예;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 운다 등), 불안은 실제 또는 가상적인 문제에 대해 긴장하거나 두려워 하는 경향을 측정(예;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한다, 실수할까봐 걱정된다, 라고 말한다), 신체증상은 작은 신체문제와 불편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평하는 경향을 측정(예:두통이 있다, 소화기 장애가 있다 등)을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현화의 문제가 .89, 내재화 문제가 .88로 나타났으며, 전체 행동문제의 문항내적합치도는 .92로서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검사문항의 신뢰도

영역	하위영역(문항수)	Cronbach's <i>a</i>
외현화 문제	공격성(11)	.87
	과잉행동(13)	.84
	외현화 전체 (24)	.89
내재화 문제	우울(10)	.77
	불안(11)	.83
	신체증상(8)	.73
	내재화 전체 (29)	.88
행동문제 전체(53)		.92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전체 조사기간 2008년 1월21일 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유아교육기관을 선정, 연구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조를 요청하여 부산광역시 H구, J구, Y구 소재 2개 유치원과 1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와 만6세 유아들과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국판 영유아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 부모설문지를 2008년 1월 21일 부터 2월 15일까지 총 271부를 배부하여 최종 250부를 회수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표준화검사인 한국판 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 CCTT)(신민섭, 구훈정, 2007)는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여 총 244명의 유아가

검사에 응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 결과는 유아와 학부모 모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을 분석 사례로 삼았으며, 분석에 포함된 대상 유아 243명이다.

4. 자료분석

분석을 위하여 CCTT-1과 CCTT-2의 원점수(문제해결에 걸린 시간)를 합산하여 표준점수화(t점수)하여 사용하였으며, K-BASC는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점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의 경우,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라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남아, 여아)과 연령(만 5세, 만 6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유아의 주의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성 및 연령별 주의력의 기술통계치

통계치	변인	성		연령		전체 (n=243)
		남아 (n=122)	여아 (n=111)	5세 (n=104)	6세 (n=139)	
M		49.58	50.46	55.15	46.50	50.00
SD		10.24	9.76	10.95	7.54	10.00

<표 4> 성X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

종속 변인	소스	제3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주의력	모형	4221.29	3	1407.10	17.03	.000
	성	73.79	1	73.79	.89	.346
	연령	4164.76	1	4164.76	50.39	.000
	성*연령	.13	1	.13	.02	.968
	오차	18678.71	226	82.65		
	합계	597900.00	230			

주의력 과제 해결에 걸린 시간(CCTT의 원점수)을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표준점수인 T점수로 전환하여 비교한 바에 따르면, <표 3>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M=49.58, SD=10.24)가 여아(M=50.46, SD=9.76)보다 주의력 과제에 걸린 시간의 표준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만 5세아(M=55.15, SD=10.95)보다 만 6세아(M=46.50, SD=7.54)가 주의력 과제해결에 걸린 시간의 표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주의력이 조금 높고, 만 6세아가 만 5세아보다 주의력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89, p>.05$),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0.39, p<.001$). 그리고 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02, p>.05$). 즉 주의력에 대해서 연령이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남아, 여아)과 연령(만 5세, 만 6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유아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5>, <표 6>와 같다.

<표 5> 성 및 연령별 행동문제의 기술통계치

통계치	변인	성		연령		전체 (n=243)
		남아 (n=122)	여아 (n=111)	5세 (n=104)	6세 (n=139)	
외현화	M	1.16	.99	1.10	1.05	1.07
행동문제	SD	.46	.37	.40	.44	.42
내재화	M	1.18	1.18	1.17	1.18	1.18
행동문제	SD	.38	.41	.40	.40	.40
행동문제	M	1.18	1.10	1.15	1.12	1.14
전체	SD	.39	.35	.36	.38	.37

<표 6> 성X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종속 변인	소스	제3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외현 화문 제	모형	1.53	3	.51	2.91	.036
	성	1.40	1	1.40	7.99	.005
	연령	.10	1	.10	.58	.449
	성*연령	.03	1	.03	.16	.693
	오차	33.27	190	.18		
	합계	34.80	193			
내재 화문 제	모형	.03	3	.01	.70	.977
	성	.00	1	.00	.00	.971
	연령	.00	1	.00	.03	.871
	성*연령	.03	1	.03	.18	.676
	오차	29.53	186	.16		
	합계	29.56	189			
전체	모형	.30	3	.10	.72	.54
	성	.24	1	.24	1.76	.186
	연령	.04	1	.04	.26	.613
	성*연령	.00	1	.00	.02	.894
	오차	24.55	178	.14		
	합계	24.85	181			

외현화 및 내재화 요인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한 <표 5>에 따르면, 성에 따라서는 남아(M=1.16, SD=.46)가 여아(M=.99, SD=.37)보다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남아(M=1.18, SD=.40)와 여아(M=1.18, SD=.40)간에 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만 5세아(M=1.10, SD=.40)가 만 6세아(M=1.05, SD=.4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화의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만 6세아(M=1.18, SD=.40)가 만 5세아(M=1.17, SD=.4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를 모두 합산 평균한 점수에서는 남아(M=1.18, SD=.39)가 여아(M=1.10, SD=.35)보다, 만 5세아(M=1.15, SD=.36)가 만 6세아(M=1.12, SD=.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부모가 여아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외현화 행동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만 5세아는 외현화 행동에 대해 그리고 만 6세는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외현화의 행동문제는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7.99$, $p<.01$), 연령에 따른 차이($F=.58$, $p>.05$)나 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F=.16$, $p>.05$)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의 행동문제는 성($F=.00$, $p>.05$), 연령($F=.03$, $p>.05$),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18$, $p>.05$)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문제 전체에서도 성($F=1.76$, $p>.05$)과 연령($F=.26$, $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02$, $p>.05$)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행동문제 중에서 공격성과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의 요인에서만 성에 따른 주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로부터 수집한 주의력 검사의 측정변인의 점수와 행동문제 측정변인의 점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불안	신체증상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행동문제 전체
주의력	-.06	-.13	-.18*	-.13	-.11	-.11	-.23**	-.21**

*p<.05 **p<.01

연구대상 유아의 전체를 기준으로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점수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는 모두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재화 행동문제 중 우울($r=-.18$,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행동문제($r=-.18$, $p<.05$)와 행동문제 전체($r=-.18$, $p<.05$)와의 상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의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내재화 행동문제, 특히 부모가 유아의 우울을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가. 유아의 성별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의 성에 따라 주의력 검사의 측정변인의 점수와 행동문제 측정변인의 점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성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불안	신체증상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행동문제 전체
남아	주의력	-.03	-.25*	-.37***	-.21*	-.07	-.18	-.34**	-.29**
여아	주의력	-.08	-.03	-.01	-.06	-.15	-.03	-.12	-.11

*p<.05 **p<.01 ***p<.001

<표 8>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 모두 주의력과 행동문제는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 전체와 주의력이 부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과잉행동($r=-.25$, $p<.05$)과 내재화 행동 중 우울($r=-.37$, $p<.001$), 불안($r=-.21$, $p<.05$)과 주의력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내재화 행동문제($r=-.34$, $p<.01$)와 행동문제 전체($r=-.29$, $p<.05$)에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는 주의력이 높을수록 과잉행동과 우울, 불안과 같은 행동문제에 대해 낮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아의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주의력 검사의 측정변인의 점수와 행동문제 측정변인의 점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연령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불안	신체증상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행동문제 전체
만 5세 주의력	-.06	-.17	-.21	-.11	-.12	-.18	-.26*	-.30*
만 6세 주의력	-.01	-.16	-.20*	-.15	-.08	-.11	-.20*	-.18

* $p < .05$

<표 9>에 의하면, 만 5세아와 만 6세아 모두 모두 주의력과 행동문제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아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 신체 증상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r = -.26, p < .05$)와 행동문제 전체($r = -.30, p < .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하위요인별 각각의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상관의 정도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만 6세아는 내재화 행동문제 중 우울($r = -.20, p < .05$)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행동문제($r = -.20, p < .05$)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만 5세아는 주의력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지각을 낮게 받으며, 만 6세아는 주의력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 특히 우울을 낮게 지각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만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의력과 행동문제를 측정하여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의력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89, p>.05$),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F=50.39, p<.001$), 주의력에 대해서 연령이 주효과를 가지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만 5세아에 비해 만 6세아의 주의력 과제의 해결 시간이 의미있게 짧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의력이 유아의 발달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주의의 폭이 증가하며(추영란, 1992), 장난감과 같은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며(Ruff & Lawson, 1990), 유아기의 주의 전개가 점차 계획적으로 되어가고(김정희 외, 2000),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발달하면서 주의는 보다 통제적이고, 적응적으로 발전한다(김수희 외, 2006)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유아의 주의력에 대한 성별 차이에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이 시기의 유아들의 주의력에 성별 자체만으로는 큰 차이는 적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는 균등한 교육

적 기회 제공이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성($F=7.99, p<.01$)이 주효과를 가지며, 우울이나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의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성 및 연령의 주효과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높이 지각되고 있는 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다 많이 갖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는 선행연구(강혜경, 2003; 이미자, 2000; 조정애, 2000)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남아가 여아보다 전체적으로 문제행동(공격행동, 불안행동, 산만행동)이 높고, 남아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문제행동을 많이 가지며 반면 여아들은 오히려 자신이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가지며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과 불안, 과잉행동성-산만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강혜경(2003)은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이 또한 본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그리고 많은 여러연구(강혜경, 2003; 이은주, 2006; 주경민, 1999; 최연희, 2001)에서 밝혔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훈육태도가 권력 단언적이고, 적대적일 때 유아의 공격행동, 산만행동이 높고 품행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충문제행동을, 아버지가 과잉 반응적일 때 아동은 외현화문제와 충문제를 많이 보이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서수경(1993)은 남아가 기질적인 영향(높은 활동수준, 높은 반응강도, 높은 주의 전환성, 낮은 적응성)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부모, 교

사,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남아의 경우 기질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편모, 편부 가정의 증가 등 새로운 가족형태의 변화되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므로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 및 연령에 따라 모두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주의력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을 낮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 중 남아의 경우($r=-.37, p<.001$)와 연령 중 만 6세아($r=-.20, p<.05$)는 내재화 행동문제 중에서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이외에도 남아는 과잉행동($r=-.25, p<.05$)과, 불안($r=-.21, p<.05$)과 주의력간의 의미있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아는 주의력이 높을수록 과잉행동과 우울, 불안과 같은 행동문제에 대해 낮게 지각되며, 만 6세아는 주의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ADHD를 가진 아동들 혹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행동문제와의 관련을 고찰한 바,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와의 상관이란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의 ADHD 성향과 불안의 관계를 밝힌 강현해(2005)의 연구나 공격성과의 관계를 보고한 오명숙(2004)의 연구결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ADHD 유아가 일반유아에 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도, 기질성향,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임원신(2006)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결과와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하겠다.

2.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주의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행동문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여아보다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주의력과 지각된 행동문제는 부적 관계이며, 특히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성 및 연령에 따른 상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3. 제언 및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 관련하여, 유아교육현장 및 가정에서 고려해야 할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된다는 측면에서, 또래에 비하여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이후 학습이나 사회적응의 중요한 측면임을 고려해 볼 때,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를 대상으로 주의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기에 임상학적 차원에서의 주의력결핍에 대한 진단이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높은 표준화검사로서 주의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한편,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의 주의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진단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도구를 번안한 형태의 평정척도형 검사가 일부 소개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가정 및 유아교육기관의 맥락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한 유아수행형 또는 부모나 교사의 관찰형 검사를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문제 중 특히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 간의 상관성이 다른 행동문제에 비하여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우울관련 행동을 간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의력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문제를 평정하도록 설계한 바, 부모와 교사의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정이은, 2007)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부모이외에 교사와 같이 유아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평정도 함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인원은 3개의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만6세 유아 최종 243명만 실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 연령의 유아들의 주의력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유아의 주의력은 CCTT검사와 행동문제는 부모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모의 주관적인 견해의 응답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부모, 교사, 전문가의 다각적인 방법에 의한 행동 문제의 평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CCTT는 시각-운동 능력과 아동(유아)의 주의집중력과 초기실행기능(행동, 정서, 사고를 조절)을 측정한다. 어떤 장애에 대한 진단 도구가 아니며, 어떤 개별 검사도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CCTT점수만으로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어렵다. 교육 및 심리학적 평가에서 권고하는 피검사의 배경, 신경심리학적 검사프로파일, 행동상의 특성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평가 맥락 안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검사 기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일 검사 측정치로써 CCTT점수를 해석할 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신민섭·구훈정 2007).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주의력 및 행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에게 유아의 교육 및 지도에 있어 기초적 정보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임순(1996).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아동의 정서적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비교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혜경(2003).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현애(2005). 학령기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중·류왕효·류인숙·박은준·신화식·유구종 외(2003).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김귀애(2003).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하위유형에 따른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2004). 한국 유아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완화요인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24(2), 135-158.
- 김소라(1995).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 아동의 과제 수행에 대한 기대와 귀인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희·전대성·나용선·김지현(2006). **아동발달**. 서울: 양서원.
- 김순혜(1992). 자주특성에 따른 아동의 지각구조와 선택적주의의 발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미(1996).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김현주·정인숙(2000). **아동발달심리**. 서울: 동문사.
- 김지영(2002).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문제 행동과 문제 유형별 지도에 관한

-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아(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지도 실태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민 · 조수철 · 정인파 외 (1996).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7(2), 213-223.
- 문수백 · 이영재 · 여광응 · 조석희(2006). **종합인지기능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배미란(1998). 인지과정 측정을 위한 PASS모형의 타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만수(2004).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적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주은(2005). ADHD 유아의 인지, 행동 및 정서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형란 · 이현진 · 김혜리 외(2003). **인지발달**. 서울: 학지사.
- 송의열(1999). 유아 문제 행동의 유형과 평가.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6, 137-157.
- 송의열 · 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8, 153-177.
- 송주은(2006). 미술활동이 아동의 행동에 주는 영향.-주의산만과 과잉행동, 부주의, 아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민섭 · 구훈정(2007). **아동색선로 검사 -한국판 표준화-** 서울: 학지사.
- 신민섭 · 박수현(1997).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아동의 신경심리학적 평가.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8(2), 217-231.

- 신현균(2002).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주의산만하고 유별난아이.
서울: 학지사.
- 양혜영 · 이혜련(1996). 소아정신과에 의뢰된 아동의 주문제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9(2), 106-121.
- 오명숙(2004). 유아의 반항행동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과 관련된 유아
의 공격성과 부모환경.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가효 · 윤요은(2002). 유아의 정서,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9, 149-171.
- 이경숙(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고찰. 신라대학교 사회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 신의진 · 신동주 · 전연진 외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
척도 표준화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75-191.
- 이경숙 · 신의진 · 전연진 · 박진아(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
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경화 · 손원경 · 정혜영 외 (2006). PASS 모형에 따른 유아의 인지과정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443-462.
- 이미자(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희(2001). 가정환경과 아동의 주의집중력 발달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2002). 신경(두뇌)피드백에 기초한 주의력 개선. **한국지체부자유아
교육학회**, 40, 197-212.

- 이옥형·신현오(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17, 193-217.
- 이은주(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명희(1998). 유아의 문제 행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51-234.
- 임영미(1989). 아동의 지속적 주의력의 발달 및 과잉활동 아동과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신(200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숙(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정문자(1988). 유아의 문제 행동, 한국 아동학회 1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이은(2007). 유아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일치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명(2001). 파워포인트 동화 활용 제시 방법이 유아의 주의집중과 컴퓨터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경미(1991). 물체에 투사된 모양에 대한 아동의 지각적 변별 발달 및 훈련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주(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주연(1996). 인지과학적 발견에 기초한 주의집중 전략. **한국초등교육**, 8(2), 219-242.
- 지성애(1999). 유아 문제 행동의 이해와 행동 지도, 유아 문제 행동 이해와 행동 지도의 실제. **공주영상정보대학, 제3회** 유치원 교사 세미나, 3-37.
- 주경민(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불안정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순(2001).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만족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희(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태도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영란(1992). 주의력 발달 및 배경변인별 차이. **유아교육연구**, 2(1), 165-172.
- 하규섭 · 권준수 · 류인균(2002). 한국 성인 주의력 평가를 위한 전산화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 **신경정신의학**, 41(2), 335-346.
- 하은혜 · 오경자(1992).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약물치료에 따른 모-자 상호행동과 인지적 · 행동적 증상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45-161.
- 황혜정 · 윤명희 · 강성빈 외(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latrtry.

- Anastopoulos, A. D. & Barkley, R.(1989). A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C. E. Schaefer & J. M. Briesmeister (eds.). *Handbook of Parent Training: Parents as Cotherapists fo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pp. 83-104). NY: Wiley & Sons.
- Barabasz, M., & Barabasz, A.(1996). Attention deficit disorder: Diagnosis, etiology, and treatment. *Child Study Journal*, 26, 1-36.
- Becker, W.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s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 Russel Sage Foundation, 1964.
- Berk, L. E.(2003). *Child Development(6th ed)*. MA: Allyn and Bacon.
- Cohen, R.A.,(1993). *The neuropsychology of attention*. New york: Plenum Press.
- Cratty, B. J.(1989). *Psychology in Contemporart Sport*. Englewood Cliffs, J: Prentice-Hall.
- Davies, D.R., Jones, D. m., & Taylor, a.(1984). Selective and sustained attention task : Individual and grouping difference, In A. Parasuraman, & D.R. Davies. (Ed.) *Varieties of Attention*, Florida : Academic Press.
- DeMarie-Dreblow, D., & Miller, P. H.(198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trategies for selective attention: *Evidence for a transitional period*. *Child Development*, 59, 1404-1413.
- Deparment For Education(DFE)(1993). *Pupils with problems, draft Circular*. London: DFE Publication Centre.

- Douglas, V. I.(1983) Attentional and cognitive problems. In M. Rutter(Ed). *Developmental neuropsychiatry* (pp.280-329). New-York. Guilford.
- Douglas, V. I.(1988). *Cognitive deficits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Child Psychiatry (Monograph Supplement)*. Oxford: Pergamon Press.
- Duncan, J.(1985). Visual search and attention, In M.I. Posner & O.S.M Marin(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Hillsdale, NJ: Erlbaum*.
- Enns, J. T., & Akhar, N.(1989). The development study of filtering in visual attention. *Child Development, 60*, 1188-1199.
- Essa, G. L(1988), *A Practical Guide to Solving Preschool Behavior Problem*, N.Y. Prentice Hall.
-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Thomas*.
- Flavell, J. H.(1985). *Cognitive development (2nded.)*. Englewood cliffs, NJ: Erlbaum.
- Gibson, E. J.(1969). *Principles of perceptual lear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Appletoncentruy-Crofts.
- Heilman, K.M., Wastson, R. T., & Valenstein, E.(1993). Neglect and related disorders. In: K.M. Heilman & E.
- Hooks, K., Millich, R., & Lorch, E. P.(1994). Sustained and Selective Attention in Boy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 Child Psychology, 23(1)*. 69-77.

- Hwang, H. J., & St James-Roberts, I.(1998).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in primary school children from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7), 973-979.
- Jeffrey, W. E.(1968). The orienting reflex and attention in cognitive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75(4). 323-334.
- Kamphaus, R. W., & Reynolds, C. R.(1992).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Manual*.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Kell, S. H., & Garfinkel, B. D.(1983). The computerized continuous performance task : A new measure of inattention.
- Kewler, E., & Zingale, C.(1985). Smooth eye movements as indicators of selective attention. In M. I. Posner & O. S. Marin(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XI*.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uffman, J. M.(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u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5th ed)*. NY: Macmillan.
- Lane, D. M., & Person, D. A.(1982). The Development of selective atten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8, 317-337.
- Llorente. A M., Williams, J., P., & D'Elia, L. F.(2003). *Children's Color Trails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Lockwood, K. A., Marcotte, A. C., & Stern, C.(2001). Differentiation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ubtypes: Application of a Neuropsychological Model of Atten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23(3), 317-330

- Lovads, O.I., Kogea, R.L., & Schreibman, L.(1979). Stimulus overselectivity in autism :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6, 1236-1254.
- McGuire, J., & Richman, N.(1988). *The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handbook*. UK. NFER-NELSON.
- Miller, P. H., & Weiss, M.G.(1981). Children 's attention allocation: Understanding of attention and performance of incidental learning task. *Child Development*, 52, 1183-1190.
- Moray, N.(1969). *Attention : Selective Processes in vision and hearing*. London : Hutuchison Educational.
- Odom, R. D. & Guzman, Rl D.(1970). Problem solving and perception salience of variability and constancy: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 156-165.
- Parasuraman, R.(1984). Sustained attention in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in R. Parasuraman., & D.R. Davies (Ed.), *varieties of Attention*, Florida : Academic Press.
- Pick, A. D., Frankel, G. G., & Hess, V. L.(1975). Children 's attention: The development of selectivity. In E. 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cton, T. W., Stuss, D. T., & Marshall, K. C.(1986). Attention and brain. In S. Friedman, K. Klingvington, & R. Peterson (Eds.), *The brain, cognition, and education(99. 19-79)*. Orlando, FL : Academic Press.

- Posner, M. I., & Boies, S. J.(1971). Components of attention. *Psychological Review*, 78 (5) 391-408.
- Posner, M. I., Walker, J. A., Friedrich, F.A., & Rafal, R. D.(1987). How do the parietal lobes direct covert attention? *Neuropsychologia*, 25, 135-145.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J.(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ural study. London: Academic Press.
- Rutter, M(Ed.) (1980). *Developmental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Silverman, J.(1970). Attentional style and the study of sex differences. IN D. I. Mostofsky(Ed), *Attention: Contemporar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Taylor, E. (1980). Development of Attention. In M. Rutter(Ed.), *Scientific Foundation of Developmental Psychiatry*. London: Heineman Medical Books.
- Thomas, R.M. (1979).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California: Wadsworth.
- Thomas, A., Chess, S., & Birch, H. g.(1969).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 in Children*. New York University.
- Vurpillot, E.(1968). The developmen of scanning strategies and their relation to visu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 632-650.



